

양육수당이 자녀 돌봄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Home Child Care Allowance on the Choice of Child Care Types

: Focusing on the Concordance between an Ideal and Actual Child Care Type

최슬민(Seulmin Choi)*, 진미정(Meejung C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influences a mother's choice of child care type. To accomplish this goal, we surveyed 432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child under 5 years ol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had a high tendency to choose home child care allowance instead of child care subsidy. Second, mother's employment status, age of first child and an interactive term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home child care receipt influenced a concordance between an ideal and actual child care type.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 concordance between their ideal and actual types of child care. By investigating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affects the right of choice in child care typ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and contributes to develop cash-benefit policies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주제어(Key words): 양육수당(home child care allowance), 보육료/유아학비(child care subsidy), 선택권(the right of choice), 자녀 돌봄유형(child care type), 현금지원정책(cash-benefit policy)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지원 성격의 양육지원정책은 크게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으로 구분된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보육료 지원은 2006년, 양육수당은 2009년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부터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육지원정책으로서의 양육수당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현금지원을 통해 정책 수혜자에게 돌봄유형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돌봄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유형의 선택권이란 가정양육(부모의 양육과 도우미의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등 다양한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Seulmin Cho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225-405, Seoul National University, Daehak-dong,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10-2371-0328, E-mail: seulmin@gmail.com

돌봄유형 중 부모가 처해진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돌봄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양육수당 이전에는 보육시설의 가수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자녀의 돌봄유형이 시설보육으로 지나치게 집중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줌으로써 부모에게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의 양육(양육수당)과 시설에서의 양육(보육료/유아학비)중에 선택하도록 정책이 재조정됨으로써 그 동안 시설양육의 선택을 강화하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돌봄유형의 선택을 지지하고 좀 더 균등하게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양육수당의 정책 효과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녀 돌봄유형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양육수당이 과연 실질적으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실제로 그 동안 많은 국가에서 양육정책에 있어서의 현금지원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육수당이 지원된 이후 돌봄유형의 선택이 계층적으로 차별화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정책은 부모의 돌봄유형 선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M. Kremer (2002)는 사회정책에서 자유선택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자유선택이 필연적으로 가진 계층성을 지적하였고, N. Morel(2006)은 프랑스에서 현금지원정책의 도입 이후 경제적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양육정책과 돌봄유형을 선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의 효과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OECD Family 자료(2014)와 OECD 근로자 평균 임금 자료(2015)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의 지급액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약 5.6%정도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¹⁾ 양육수당이 저소득계층에서 임금소득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보고된 것처럼 돌봄유형의 계층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또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외국의 양육수당과 달리 도입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 그 양태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양육수당과 마찬가지로 소득계층에 따라 양육정책과 돌봄유형을 다르게 선택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여 현재 보육서비스를 양육수당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 미취업모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발생한 보육시설 가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과의 형평성을 위해 확대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양육수당의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양육수당이 자녀 돌봄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지원정책 중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누가 보육료/유아학비가 아닌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G. Eydal & T. Rostgaard, 2011; H. Hiilamo, H & O. Kangas, 2003 ; N. Morel, 2006)들에 착안하여, 소득이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력이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양육수당이 돌봄유형 선택권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유형의 선택권을 측정하는 변수로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로 선정하였다.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이 일치한다면 어머니의 돌봄유형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설정하였다. 돌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양육수당이 돌봄유형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없었고, 양육수당의 독특한 정책목표인 선택권에 집중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도는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료/유아학비 대신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어머니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양육수당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 OECD(2014)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도시근로자 연평균 임금대비 양육수당(Family Benefits) 지원 금액의 비율은 북유럽국가인 핀란드가 3%, 스웨덴이 3%를 나타냈으며, 프랑스는 2%에 불과하였다. 도시근로자 연평균 임금대비 양육수당 지원 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9%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으나, OECD(2015)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2년 도시근로자 연평균임금(약 3200만원) 대비 양육수당의 지급금액(약 15만원*12개월 = 약 180만원)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5.6%가 도출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양육수당과 선택권

D. Song(2009)은 아동양육에 있어 자유선택(freedom of choice)을 '부모가 여러 가지 보육의 방식 중 자신의 자녀를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 가족 기금(CNAF,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인 CNAF(2003)는 양육에 있어서 자유선택은 일로부터 자유로워짐, 노동시장으로부터 아동양육으로의 이동,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as cited in N. Morel, 2006). N. Morel(2006)은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 자유선택은 부모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양한 양육의 형태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다. H. Hiilamo and O. Kangas(2003)은 핀란드에서 양육정책에 있어 자유란 가족들이 다양한 양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돌봄유형의 선택권이란 가정양육(부모의 양육과 도우미의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등 다양한 돌봄유형 중 부모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의 돌봄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양육의 선택에 대한 논의는 돌봄정책의 시장화 논의와 함께 등장하였다. 먼저 왜 돌봄정책에서 시장화가 도입되었는지에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D. Brennan, B. Cass, S. Himmelweit and M. Szebehely(2012)은 돌봄정책의 시장화란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돌봄을 상품화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자는 판매자로 돌봄을 이용하는 자는 구매자로서의 전환이라고 정의하였다. R. Blank(2000)와 I. Greener(2008)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을 통한 보육서비스 전달은 두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보육을 소비하는 수혜자들이 보육에 있어 소비자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이 상품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부여받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보육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H. Arksey and P. Kemp(2008)와 R. Freedman and N. Boyer(1999), J. Breda, D. Shoenmaekers, C. V. Landeghem, D. Claessens and J. Geerts(2006)의 연구에서도 현금지원정책의 일반적인 정책기대효과는 개인이 스스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구매할

다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전달체계에서만 전달받아 내려온 서비스를 수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D. Brennan et al.(2012)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자유경쟁체제와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공공영역에 대한 재정부족에 대한 압박은 각국이 공공영역의 시장화를 정책적으로 채택하도록 이끌었다. 실제로 각국에서는 보육영역의 시장화를 피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갔다. 전통적으로 보육영역의 공공성을 중요시하던 북유럽국가에서도 1990년대 이후 보육재정 상태의 악화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흐름을 바탕으로 보육영역을 사유화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갔으며, 보육영역의 사유화는 결국 보육수혜자들에게 현금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P. Blomqvist, 2004). S. Hong(2005)는 프랑스 역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공공영역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설제공보다는 현금지원 정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양육수당이 실질적으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동안 관련연구에서 현금지원정책은 부모의 선택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보다는 돌봄유형 선택의 계층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며 현금지원을 통한 아동양육정책을 시행하였는데, N. Morel(2006)은 부모들이 소득계층별로 다른 양육정책을 선택하여 아동양육정책이 사회계층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였다. G. Eydal and T. Rostgaard(2011)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어 현금지원정책의 도입 이후, 저소득계층과 이민자 가족은 현금지원을 받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아이들은 현금지원 없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계층 간의 분리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H. Hiilamo and O. Kangas(2003) 역시 양육정책이 사회적영역이 되어 국민이 정책의 소비자로서 보육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높은 교육수준의 소비자가 더 많은 자원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양육수당 도입 및 확대에 관한 논의의 방향도 위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D. Song(2009)은 프랑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확보 없이 자유선택의 명목아래 보육을 개별화, 시장화 하는 것은 소득계층별, 성별, 가족형태별 계층화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고, S. Hong(2005) 역시 프랑스의 보육정책을 자세히

제시하면서 양육수당의 도입 이후, 소득계층별로 부모가 다른 보육정책의 혜택을 받으며 다른 돌봄유형을 선택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프랑스에서의 양육수당지원의 확대는 프랑스의 공보육서비스 제공과는 대조적으로 반재분배적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스웨덴의 양육수당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한 H. Yoo(2010)도 양육수당의 선택권에 대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동 양육에 있어 현금지원은 저소득층과 저학력의 어머니들에게 더 선호되며, 자유선택은 결국 보편적인 권리의 확대가 아닌 시장에 지불능력을 지닌 가정의 권리만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돌봄유형의 선택권을 다룬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해외의 양육수당사례를 바탕으로 양육수당의 선택권을 비판하고 있어(S. Hong, 2005, 2008, 2011; D. Song, 2009, 2010; H. Yoo, 2010),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 자녀 돌봄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가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할지, 가정 내에서 다른 도우미에 의해 양육할지,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에서 양육할 지와 같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를 설명할 때 돌봄유형, 아동 양육 형태 등으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1)는 가정 내 양육과 기관 이용의 선택을 ‘돌봄유형’ 선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Y. Han(2010)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직접 양육, 기관 양육 등의 선택을 ‘돌봄유형’ 선택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S. Choi and K. Hong(2012)은 직접양육, 개인대리양육, 시설양육을 포함하는 용어로 ‘아동돌봄유형’을 사용하였으며, H. Yoon(2010)은 ‘아동 양육 형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동 양육 형태는 부모의 양육방식(parenting style)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누가 그리고 어디에서 양육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를 ‘돌봄유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녀 돌봄유형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특성, 자녀의 특성, 가구 특성, 지역적 특성이 돌봄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머니의 특성 중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양육 선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취업모는 미취업모에 비해 직접 양육 대신 다양한 방식의 대리양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 Park(2008)은 취업모인 경우 미취업모에 비해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고, S. Choi and K. Hong(2012)와 J. Kim(2005) 역시 취업모의

경우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5)과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0)도 마찬가지로 취업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와 학력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설양육을 선택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 Kim, K. Lee and J. Sung(2000)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E. Baek, S. Han and M. Kang(2011), J. Kim(2005), H. Yoon(2010)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직접 양육할 경향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대리양육의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S. Choi and K. Hong(2012)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종 시설양육보다 직접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연령변수의 영향에 관련해서도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S. Choi and K. Hong(2012)과 J. Kim(2004)은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접양육 선택의 확률을 높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S. Baek and S. Cho(2005)의 어머니의 연령의 증가는 대리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자녀에 관련된 주요 변수는 자녀의 연령과 자녀 수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 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N. Heo & J. Seok, 2011; S. Park, 2011). 자녀의 연령과 관련하여 N. Heo and J. Seok(2011)은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공식(시설)보육을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S. Park(2011)은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보다는 유치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이나 유치원보다는 조부모/육아도우미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가정 내 양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S. Baek & S. Cho, 2005; Y. Lim, 2008). 자녀의 수와 관련된 연구에서 S. Baek and S. Cho(2005)는 미취학 자녀가 많아질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Y. Lim(2008)은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는 1명인 가구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가정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가구와 관련된 특성에는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소득은 돌봄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 Park(2011)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린이집/놀이방에 비해 유치원을 선택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J. Kim(2004),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5)과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0) 역시 유아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거주지역에 관련된 변수의 효과를 규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 Kim(2005)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시설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S. Park(2011)은 서울 경기지역이 광역시나 도에 비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 4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IRB No. E1310/001-008)을 받은 후,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만 0세부터 4세의 자녀를 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필자가 작성하였으며 문항 수는 총 9개이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측정도구의 응답분포를 확인하였고, 설문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매끄럽지 못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리서치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패널 중 '만 0세부터 4세까지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고, 2013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서두에 설문조사 동의서를 삽입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설문에 동의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조사가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사 대상에 조건에 부합하는 패널만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모든 문항을 응답하여야 설문지 종료되도록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회수된 조사 자료에는 결측값이 없었다. 자료 분석은 설문에 끝까지 응답한 448명 중 현재 보육료/유아학비나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Table 1>과 같이 총 432명으로 모두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32.35세이다. 취업여부는 취업이 213명(49.31%), 미취업이 219명(50.69%)이었다. 첫째 자녀 연령을 살펴보면 만 0세 50명(11.57%), 만 1세

98명(22.69%), 만 2세 74명(17.13%), 만 3세 102명(23.61%), 만 4세 108명(25.00%)으로 나타났고, 자녀수는 1명이 302명(69.91%), 2명이 120명(27.78%), 3명이 10명(2.31%)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측정변수

1) 양육수당 지급여부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지원정책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급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 혹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선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는 어떠한 양육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질문하였고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둘 다 받지 않는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둘 다 받지 않는다'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1로,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독립변수로 하였다.

2)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 측정은 현재 돌봄유형과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돌봄유형에 대하여 각각 질문한 후, 그 응답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봄으로써 측정하였다. 부모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돌봄유형대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 돌봄유형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적인 돌봄유형에 대해서 '귀하는 귀하의 첫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였고, 현재 돌봄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귀하의 첫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질문하였다. 돌봄유형에 대한 응답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 '가정에서 할머니 등 친인척이 양육한다',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 베이비시터가 양육한다',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시간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전일제 유치원을 이용한다',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돌봄유형과 현재 택하고 있는 돌봄유형이 다르면 0으로 같으면 1로 코딩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응답자 432명 중 266명(61.57%)은 보육료/유아학비를 선택하였으며, 166명(37.43%)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
Age	25 ~ 29	80	18.52
	30 ~ 34	251	58.10
	35 ~ 39	97	22.45
	40 ~ 44	4	.93
	Mean(S.D)		32.35(3.02)
Marital status	Unmarried	1	.23
	Married	425	98.38
	Divorced/Seperated	6	1.39
Employment status	Employed	213	49.31
	Unemployed	219	50.6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67	15.51
	Two-year college graduate	103	23.84
	College graduate	224	51.85
	Graduate school graduate	38	8.80
Age of first child	0 year	50	11.57
	1 year	98	22.69
	2 years	74	17.13
	3 years	102	23.61
	4 years	108	25.00
Number of children	One	302	69.91
	Two	120	27.78
	Three or more	10	2.31
Monthly husband income	Less than ₩1,000,000	12	2.78
	₩1,000,000 ~ ₩1,999,999	43	9.95
	₩2,000,000 ~ ₩2,999,999	157	36.34
	₩3,000,000 ~ ₩3,999,999	128	29.63
	₩4,000,000 ~ ₩4,999,999	8	11.11
	₩5,000,000 ~ ₩5,999,999	32	7.41
	More than ₩6,000,000	12	2.78
Residential area	Major cities	258	59.72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155	35.88
	Rural area	19	4.40
Total		432	100.00

Table 2. The Choice of Child Care Types in Accordance of the Age of First Child

	The choice of child care types		Total(%)	
	Child care subsidy(%)	Home child care allowance(%)		
Age of first child	0 year	3(6.00)	47(94.00)	50(100.00)
	1 year	29(29.59)	69(70.41)	98(100.00)
	2 years	44(59.46)	30(40.54)	74(100.00)
	3 years	89(87.25)	13(12.75)	102(100.00)
	4 years	101(93.52)	7(6.48)	108(100.00)
	266(61.57)	166(38.43)	432(100.00)	

증가할수록 양육수당에 비해 보육료/유아학비를 수급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3)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문항

양육수당의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문항은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수당이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양육수당의 수급여부는 '보육료/유아학비'는 0으로, '양육수당'은 1로 코딩하였으며, 취업여부는 '취업하고 있다'는 '취업'으로 재변수화 하여 0으로 코딩하였고 '전에는 했지만 그만두었다'와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다'는 '미취업'으로 재변수화 하여 1로 코딩하였다. 이 두 변수를 조합하여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문항을 제시하였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연령

연령은 응답자가 만 나이를 직접 적도록 하였다.

(2) 취업여부

취업여부는 '취업하고 있다', '전에는 했지만 그만두었다',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다'로 구성된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 시 취업상태는 취업 여부로 변수화 하여 '취업하고 있다'는 '취업'으로 재변수화 하여 0으로 코딩하였고 '전에는 했지만 그만두었다'와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다'는 '미취업'으로 재변수화 하여 1로 코딩하였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전문(2,3년제)대학 졸', '4년제 대학 졸', '대학원이상 졸'로 구성된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4) 첫째 자녀 연령

첫째 자녀의 연령은 응답자가 만 나이를 직접 적도록 하였다.

(5) 자녀 수

자녀 수는 응답자가 자녀 수를 직접 적도록 하였다.

(6)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은 8단계로 나누어 '100만원 이하'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모두 8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600만원 이상 ~ 700만원 이하'와 '700만원 이상'은 응답자의 수가 적어 응답을 묶어 같은 값으로 코딩하였다.

(7)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구성된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분석과정에서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에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변수로 투입하여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어머니의 개인변수로서 연령, 취업여부, 교육수준이 자녀변수로서 첫째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 가구변수로서 배우자의 소득과 거주지역이 포함되었다.

Table 3. Factors that Influence Mother's Choice of Home Child Care Allowance

	b (S.E.)	odds ratio
Constant	2.96(1.62)	
Demographic factor		
Age	-.01(.05)	.99
Employment status ¹⁾	1.34(.29)**	3.81
Education level ²⁾		
Two-year college graduate	.03(.46)	1.03
College graduate	.38(.43)	1.46
Graduate school graduate	.62(.60)	1.85
Age of first child	-1.35(.15)**	.26
Number of children	-.57(.32)	.57
Monthly husband income	.18(.11)	1.19
Residential area ³⁾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34(.30)	1.40
Rural area	.03(.75)	1.04
N		432
Likelihood X2(df)		232.31(10)**
-2Log likelihood		-171.60

**p<.01

1) 0= Employed, 1=Unemployed

2) Reference : High school

3) Reference : Major cities

IV.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수당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양육수당의 선택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 자녀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인 경우에 양육수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미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3.81배, 첫째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0.26배 양육수당을 선택할 승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의 소득변수는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은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양육수당의 수급여부 변수를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로 포함하였고, <Model 2>는 <Model 1>에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문항을 변수를 추가하여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Model 1>을 살펴보면,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 자녀 연령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인 경우, 첫째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이 일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가 3.48배, 첫째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0.79배,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이 일치할 승산이 있다.

<Model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 자녀 연령,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문항이 영향을 미쳤다. 첫째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모보다 미취업모인 경우에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이 일치하였다.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가 2.37배, 첫째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0.79배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이 일치할 승산이 있다. 또한, <Model 2>

Table 4.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ncordance between an Ideal and Actual Child Care Type.

	Model 1		Model 2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Constant	3.41(1.46)		3.31(1.38)	
Demographic factor				
Age	-.05(.04)	.95	-.05(.04)	.95
Employment status ¹⁾	1.25(.24)**	3.48	.86(.28)**	2.37
Education level ²⁾				
Two-year college graduate	-.61(.35)	.54	-.62(.35)	.54
College graduate	-.01(.33)	.99	-.05(.33)	.95
Graduate school graduate	-.38(.46)	.69	-.43(.46)	.65
Age of first child	-.24(.12)*	.79	-.26(.12)*	.7
Number of children	-.43(.23)	.65	-.38(.23)	.68
Monthly husband income	.15(.09)	1.16	.15(.09)	1.16
Residential area ³⁾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25(.24)	1.29	.22(.24)	1.25
Rural area	.28(.57)	1.32	.26(.57)	1.30
Home child care allowance	.12(.30)	1.13	-.41(.37)	.66
Employment status * Home child care allowance			1.25(.51)**	3.49
N	432		432	
Likelihood X2(df)	63.16(11)**		69.57(12)**	
-2Log likelihood	-246.08		-242.88	

* $p < .05$ ** $p < .01$

1) 0= Employed, 1=Unemployed

2) Reference : High school

3) Reference : Major cities

에 추가한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문항도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모인 경우,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어머니가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이 일치하였다. 즉, 미취업모에게 양육수당은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이 자녀 돌봄유형의 선택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양육수당의 선택여부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 자녀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첫째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어머니가 미취업모이며 만 2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양육수당을 선택한다는 결과는 양육수당이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하는 가정의 양육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육수당의 선택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시설보다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N. Heo & J. Seok, 2011; S. Park, 2011)와도 일치한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는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취업모일수록 양육수당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배우자의 소득변수는 양육수당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저소득층에서 '양육수당', 즉 가정에서의 양육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G. Eydal & T. Rostgaard, 2011; H. Hiilamo & O. Kangas, 2003; N. Morel, 2006).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양육수당이 소득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보육을 선택하며, 이는 곧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영유아교육에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육수당의 수급여부가 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자녀에 연령에 의해 결정된다. 오히려, 양육수당은 가정 내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우려한 교육의 불평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를 계층

에 따라 자녀 돌봄유형이 다르지 않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자녀 돌봄유형은 가정 내 양육과 시설 이용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 안에서 다양한 돌봄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은 양육수당이 계층적으로 다르게 선택되지 않으며, 돌봄유형의 계층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보육서비스 제공의 정책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양육환경에서 양육수당의 확대도입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그들의 양육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선행연구와의 비교와 같은 경우, 해외의 양육수당과 한국의 양육수당은 정책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의 계층화 효과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첫째 자녀 연령,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문항이 영향을 미쳤다.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가, 첫째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이 일치하였다. 이는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보육시설 내에서 양육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미취업모는 취업모와 달리 가정 내에서 직접 양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돌봄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양육수당의 수급여부는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육수당 수급여부와 취업여부의 상호작용 문항은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의 일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수당은 모든 어머니에게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을 일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취업모들에게는 이상적인 돌봄유형과 현재 돌봄유형을 일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양육수당은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에게 자녀 돌봄유형의 선택권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양육수당은 미취업모들이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양육지원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본연의 정책 목표인 현금지원을 통하여 가정 내 양육을 보조하고 자녀 돌봄유형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역할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취업모들에게

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정책, 직장 내 보육 시설 확충, 탄력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녀 돌봄유형의 선택권을 제공해 준 측면이 있었다. 양육수당은 현금지원을 통하여 미취업 모에게 자녀 돌봄유형의 선택권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정 내 양육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미취업모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양육수당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보육시설 이용의 가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취업모가 양육수당을 선택한다는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양육정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정책이나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충과 같이 취업 모의 일·가정 양립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미취업모들도 양육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3)의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가구의 미취업모 비율은 59.7%로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들을 양육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흡수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누가 양육수당을 선택하는지를 규명하고, 양육수당이 부모의 자녀 돌봄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새롭게 개편된 양육수당의 기대효과를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돌봄유형이 부모에게 자녀의 돌봄유형 선택권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012년에 보육료를 수급하다가 2013년부터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것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정책에 민감한 계층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양육수당 정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규명하고 좀 더 그들에게 적절한 양육수당정책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양육수당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게 좀 더 자녀 돌봄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양육수당 선택의 계층화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계층을 설명하는 변수로 배우자의 소득만을 선정하였다. 어머니 본인의 소득, 가구 소득, 가구의 자산 상태 등과 같이 개별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을 연구에 포함한다면 양육수당이 지닌 계층적인 효과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누가 양육수당을 선택하

는지를 규명하고, 양육수당이 부모의 자녀 돌봄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새롭게 개편된 양육수당의 기대효과를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앞으로 양육수당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방식의 양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rksey, H., & Kemp, P. (2008). *Dimensions of choice : A narrative review of cash-for-care schemes*(DHP 2250). York: University of York.
- Baek, E., Han, S., & Kang, M. (2011). Study on utilization and preference type of child care support service for infa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4), 210-233.
- Baek, S.-H., & Cho, S.-W. (2005). The determining factors of expenditure levels for daycare and education services for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1, 429-455.
- Blank, R. (2000). When can public policy makers rely on private markets? The effectiv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The Economic Journal*, 110(march), 34 - 49.
- Blomqvist, P. (2004). The choice revolution: Privatization of Swedish welfare services in the 1990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8(2), 139-155.
- Breda, J., Shoenmaekers, D., Landeghem, V. C., Claessens, D., & Geerts, J. (2006). When informal care becomes a paid job: the case of personal assistance budgets in Flanders. In G. Caroline & A. K. Peter (Eds.), *Cash and care: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pp. 55-70). Bristol: Policy Press.
- Brennan, D., Cass, B., Himmelweit, S., & Szebehely, M. (2012). Care, markets and migration in a globalising world: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4), 355-362.
- Choi, S. S., & Hong, K. Z. (2012).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hoice of child care type: Focusing on the care type in infancy. *Social Welfare Policy*, 39(3), 29-57.
- Eydal, G. B., & Rostgaard, T. (2011). Gender equality re-

- visited - changes in nordic child care policies in the 2000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5(2), 161-179.
- Freedman, R. I., & Boyer, N. C. (1999). The power to choose: Supports for families caring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alth and Social Work*, 25(1), 59-68.
- Greener, I. (2008). Markets in the public sector: When do they work, and what do we do when they don't?. *Policy and Politics*, 36(1), 93 - 108.
- Han, Y. M. (2010). A study on child care allowanc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2), 263-275.
- Heo, N. J., & Seok, J. E. (2011). Is the child care subsidy program in Korea friendly to working mothers?. *Social Welfare Policy*, 38(2), 139-163.
- Hiilamo, H., & Kangas, O. (2003). *Trap for women or freedom to choose?*.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inaugural ESP Anet conference.
- Hong, S. A. (2008). *Child care support policies from gender perspective*. Symposium conducted at KWDI 25th anniversary international symposium.
- Hong, S. A. (2011). Study on gender effects of home child care allowance: A case study of Finland.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31, 85-119.
- Hong, S.-A. (2005).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 Focusing on French child care policy. *The Women's Studies*, 69, 139-173.
- Kim, J. K. (2004). Factors that decide the job continuity of young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3), 91-104.
- Kim, J. K. (2005). Factors that affect the use and expenditure of households for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6), 47-60.
- Kim, S. M., Lee, K. H., & Sung, J. M.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child care : The types and the costs of child care.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3(0), 219-239.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0). *Utilization and cost of child care support service by income level*.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 *Effects and improvement of child rearing support policies*.
- Kremer, M. (2002). The illusion of free choice: Ideals of care and child care policy in the Flemish and Dutch welfare states. In M. Sonya, & M. Rianne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pp. 113-142). New York: Routledge.
- Lim, Y.-K. (2008). *Parent's variables influencing child care center sele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2012 National survey of child care*.
- Morel, N. (2006). Providing coverage against new social risks in Bismarckian welfare states: The case of long-term care. In A. Klaus, & B. Giuliano (Eds.),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pp. 227-247). New York: Routledge.
- OECD. (2014). OECD Family Data 2014.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ls/soc/PF_1_3_Family_Cash_Benefits_Jul2013.pdf
- OECD. (2015). Average annual wages. Retrieved from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_AN_WAGE
- Park, S. W. (2008). Factors that influence on child care expenses of household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1(2), 197-213.
- Park, S. W. (2011). Factors that influence the type of child care services and child care expenses. *Korea Journal of Human Ecology*, 20(4), 831-847.
- Song, D. Y. (2010). Stratification and gender in "free choi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8(4), 347-378.
- Song, D.-Y. (2009). Family policy and free choice in child care. *Issues in Feminism*, 9(2), 83-117.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Status of child care and cost of child care service*.
- Yoo, H. (2010). Free choice on the child care policies. *Social Theory*, 15, 297-329.
- Yoon, H.-S. (2010). child care type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Social Science Research*, 26(1), 1-25.

접수일 : 2014년 11월 15일
 심사일 : 2015년 01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2월 04일